

번안소설 속 정신질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 조중환의 「비봉담」과 신경열병을 중심으로

박 성 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 HK연구교수)

◆ 국문초록

조중환의 「비봉담」은 「쌍옥루」, 「장한몽」에 이어 『매일신보』에 연재된 번안소설이다. 구로이와 루이코의 『妾の罪』를 바탕으로 한 「비봉담」은 앞선 두 편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쌍옥루」의 '히스데리'나 「장한몽」의 '메랑고리아'처럼 「비봉담」에서는 '신경열병'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박화순은 살인 혐의와 더불어 신경열병을 앓게 되는데,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는 한편 신경열병으로부터도 치유되고 연인인 임달성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비봉담」의 신경열병은 이전 소설에서의 여타 정신질환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다른 소설의 정신질환이 여성인물의 죄의식과 연동되는 것이었던 반면, 신경열병은 여성인물의 내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질병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닌다. 그래서 속죄나 용서를 통해 치유되는 다른 소설의 정신질환과 달리, 신경열병은 의사에 의해 치유되며 주인공의 속죄와 연관되지 않는다. 주인공의 신경열병을 치료한 임달성 역시 의사로서 의료 행위에만 힘을 썼을 뿐, 환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등장인물의 속죄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등장인물 자신으로부터 외부의 제도와 기관으로 이관된다. 의료기관은 주인공의 신경열병을 치료하고 사법기관은 그의 무죄를 판결한다. 이전의 번안소설에서는 도덕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남성 중심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가 「비봉담」에서는 제도화된 공권력에 의해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 즉 개인의 권한은 축소되고 제도에 포섭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비봉담」의 특색으로 꼽히는 1인칭 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술자의 등장은 이러한 개인의 축소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번안소설, 신경열병, 신경쇠약, 정신질환, 의료, 매일신보

1. 들어가며

조중환의 「비봉담」은 1914년 7월 21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된 번안소설로, 저본은 구로이와 루이코(黑岩淚香)의 『妾の罪』(1890)로 알려져 있다.¹⁾ 조중환으로서는 「쌍옥루」와 「장한몽」을 이어서 세 번째로 『매일신보』에 연재한 작품이며, 선행 연구에서는 앞선 두 편과는 다르게 1인칭 서술자를 채택하여 ‘고백’을 통한 회개와 속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변별점이 거론된 바 있다.²⁾

「비봉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번역 경로와 저본 추적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쌍옥루», 「장한몽」 등 조중환의 다른 번안소설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비교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편이다. 정탐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가정소설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는 박진영³⁾의 지적이나, 다양한 번역 경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에 띄면서도 감정의 과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최태원⁴⁾의 평가는 「비봉담」이 조중환

1) 구로이와 루이코의 『와라와쓰노미(妾の罪)』는 버서 클레이의 『저주받은 삶 The Haunted Life』(1887)과 휴 콘웨이의 『어두운 날들 Dark Days』(1884)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각각 저본으로 삼아서 만든 번안소설이다. 최태원, 「번안이라는 난제 - 조중환의 번안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회, 2017.4, 158쪽.

2) 권보드래, 「죄, 눈물, 회개 - 1910년대 번안소설의 감성구조와 서사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10.

3) 박진영, 「1910년대 번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 - 일제 조중환의 『쌍옥루』와 『장한몽』」,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8.

4) 최태원, 「일제 조중환의 번안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의 다른 번안작에 비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를 가늠하게 한다.

하지만 「비봉담」이 다른 두 편의 번안소설에 대비하여 눈에 띄는 지점은 비단 서술자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쌍옥루」, 「장한몽」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심인물인 박화순은 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가 간신히 치유되어 연인이었던 임달성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박화순이 앓는 정신질환은 ‘신경열병’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이 병은 그간 조중환의 번안소설에서는 한번도 등장한 적이 없으려니와 당대 매체 내에서도 그 존재를 찾아보기 힘든 병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물론 신경열병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질환인 것은 아니다. 1차적으로는 저본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가져온 병명이기는 하겠지만, 『매일신보』 연재본 내에서 신경열병에 대한 별도의 부연도 없음을 뿐더러 발병 원인이나 진행 양상 등에 대한 서술은 상당부분 종래의 정신질환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심순애의 ‘급성 메랑고리아’나 이경자의 ‘히스테리’와 박화순의 ‘신경열병’은 사실상 신경쇠약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녔다고 보아도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열병이 주목을 요하는 것은 질병 자체의 특성보다는 질병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역할, 즉 질병을 구성하는 의미의 관계망이 이전의 번안소설과는 적잖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까닭이다. 병으로서의 성격 자체는 이미 독자들에게 익숙한 신경쇠약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 나아가서는 병을 둘러싼 박화순의 고난담과 이에 대응하는 임달성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는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경열병을 중심으로 하여 「비봉담」이 이전의 번안소설인 「장한몽」, 「쌍옥루」와 어떤 차이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일신보』 연재본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저본인 『妾の罪』를 일부 참고하였다. 『妾の罪』와 「비봉담」 사이의 차이는 번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충실하게 옮기고 있으

므로, 양 저본 사이의 본격적인 비교보다는 『妾の罪』 중에서도 신경열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참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신경열병과 존재하지 않는 질환의 상상력

「비봉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경열병(神經熱病)의 존재다. 서술자이자 중심인물인 박화순은 작중에서 여러 차례 신경열병을 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신경열병이 그의 살인 혐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경열병 특유의 증상으로 인해 법정에서는 그의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작용하고, 독자에게는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화병이나 신경쇠약이 소설 내에서 일정한 의미를 품고 제시되는 경우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서도 적잖이 발견되지만, 「비봉담」에서처럼 서사의 핵심을 좌우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신경열병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중환의 이전 번안작인 「쌍옥루」나 「장한몽」에서 등장하는 신경쇠약(神經衰弱), 신경과민(神經過敏), ‘히스테리(hysteria)’, ‘메랑고리아(melancholia)’ 등은 동시대의 매체 내에서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신경열병은 어느 매체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신경병(神經病)은 종종 등장하지만 대중매체에서는 정신병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려니와,⁵⁾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뇌와 신경의 이상, 즉 신체기관 일부의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당시의 맥락 내에서는 신경병이 굳이 정신병과 구분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5) “(중략) 장졸 중에 쓰살려 죽는 자와 신경병을 앓는 자가 만흔디 이는 기후와 풍토가 다르고 공급하는 지료가 부족하여 정신이 쾌락지 못함이라더라” 「장졸이 병들다」. 『대한매일신보』, 1907.9.11.

의미상 가장 유사한 용어를 찾는다면 19세기 영문학에서 종종 발견되는 ‘nervous fever’일 것이다. 19세기 영미 소설에서는 심기증(hypochondriacs, 건강염려증), 섬망(delirium, 譫妄), 경련 등과 더불어 신경 계통의 열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신경성 질환(nervous illness)이 자주 등장한다.⁶⁾ 특히 뇌에서 발생하는 열병 즉 ‘brain fever’는 등장인물의 정서적 피로에서 비롯되며, 나아가서는 기억상실과 같은 현상까지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상술했듯이 『妾の罪』가 버서 클레이와 휴 콘웨이의 소설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nervous fever가 ‘신경열병’으로 번역 또는 번안되었을 가능성은 적잖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의 다른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확증하기 어려운 일이다.⁸⁾

어쨌든 「비봉담」의 저본이 되는 『妾の罪』에서도 신경열병이 똑같이 등장한다.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동선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본을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 「비봉담」이기도 하려니와,⁹⁾ 특히 신경열병과 관련된 서술에서는 저본과의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임달성을 연못에 빠뜨린 뒤 발작을 일으킨 박화순을 진찰하는 대목에서 “자님의 병환은 전혀 신경열병이올시다 저 벽에 빗췌이는 니 그림자를 보고 이리케 놀넙니다그려”¹⁰⁾라는 의사의 진단은 저본에서도 “嬢様は全く 神經熱病です 壁に寫る 私しの 影を 見て 此様にお驚きなます”¹¹⁾로

6) Sara Parry, “A Strange Fever of the Nerves and Blood” (M.A. English Literature,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4), pp.3-4.

7) Dale M. Bauer, *Nineteenth-Century American Women’s Serial Nov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117.

8) 신경쇠약, 신경과민, 히스테리 등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유독 nervous fever만은 별다른 번역·번안의 흔적을 찾기 쉽지 않다. 같은 신경 계통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nervous fever가 보편적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인지, 혹은 다른 형태로 흡수 또는 재편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 이지훈, 「조중환의 『비봉담』 번안과 여행의 서사 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한국근대문학회, 2017, 41-45쪽.

10) 「비봉담」 11, 1914.8.2.

11) 黒岩涙香, 『妾の罪』, 三友舎, 1890, 59-60面.

되어 있다. 즉 신경열병이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이 병과 관련된 설명의 대부분은 「비봉담」과 『妾の罪』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경열병의 정체를 확증할 수는 없으나, 「비봉담」의 다른 서술 등을 통해서 추론컨대 신경쇠약(神經衰弱)의 연장선상에 놓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밤시도록 신경(神經)이 피로”하다든가 “정신이 산란하며 전일 알턴 신경열병이 다시 발작되는 것 곳”다든가 하는 서술은 신경쇠약을 다른 여타의 서술과 큰 차이가 없다. 과도한 정신적 활동이나 자극이 뇌와 신경에 악영향을 주어 병을 유발한다는 식의 질병관은 이미 1900년대부터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려니와,¹²⁾ 신경을 여타의 육체적 기관과 동일한 관점에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소모되는 존재로 이해했던 것¹³⁾은 신경쇠약을 둘러싼 담론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해법이기도 했다. 신경열병은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신경이라는 기관과 열병을 연결시킴으로써 탄생한 병명인 셈이었다.

실제로 신경쇠약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와 유사한 증상들이 거론된다. 1898년 일본에서 출간된 『医家綱鑑』의 ‘神經衰弱症’ 항목에 따르면 그 증상으로 불면증, 두통 등과 더불어서 기억력 감퇴와 신체의 쇠약증이 기록되어 있다.¹⁴⁾ 1900년대 당시 신문을 통해 광고하던 전기치료대(電氣治療帶)의 문구에서도 주요 효능을 신경쇠약을 비롯한 각종 신체의

12) “恒時に 心を 不用 하면 昏愚을 不免 하고 恒時に 身を 太逸 하면 虛弱에 是陷하며 且 恒時に 用心을 過度히 하면 腦病에 罹 해야 終局的 大目的을 不達 하고 恒時に 勞力을 過多히 하면 身傷을 致 해야 畢竟은 初期望을 不了 하는니” 元勛常, 「衛生の 必要」, 『공수학보』 1, 1907.1, 39쪽.

13) 비슷한 시기 『청춘』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쇠약을 ‘시험공포증’이라 하면서 이를 두고 “腦의 몸살이 남은 生理的 次例”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의 합동 토론회에서는 “不足한 腦를 만히만 쓰면 腦부터 온전할 수 업”다면서 뇌신경계의 활용 가능한 총량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피력한 경우도 있었다. 「試驗과 腦 쓰는 법」, 『청춘』 1, 1914.10, 65쪽; 「六校學生 聯合大討論會 記事 - 培材의 李東赫君(否)」, 『청춘』 4, 1915.1, 88쪽.

14) “頭部壓重, 頭痛, 眼目疲勞, 壓重久シク書記讀書スル能ハス不眠, 心思抑鬱, 勢力減耗シテ操業スル能ハス且記憶減弱, 身體衰弱, 食事缺亡, 便秘, 手足寒冷或ハ發汗” 飯高芳康·青木純造 編訳, 『医家綱鑑』, 朝香屋書店, 1898, 445-446面.

쇠약증과 더불어 기억력과 인내력 감퇴를 거론하고 있음에 눈에 띈다.¹⁵⁾ 두뇌와 신경의 과로가 기억력을 비롯한 정신활동 제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식은 비교적 널리 통용되던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경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줄여야 된다는 진단이 대중매체를 통해 설파되고는 했다.¹⁶⁾

열병(熱病)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역시 당대에도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존재했던 듯하다. 대구에 살던 일본인 이발사가 열병으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했다가¹⁷⁾, 장티푸스¹⁸⁾를 앓던 환자가 급작스러운 고열로 인해 우물에 빠져죽었다는¹⁹⁾ 기사 등이 그러했다. 물론 열병은 보통 정신질환보다는 전염병과의 인접성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했지만,²⁰⁾ 열병이 원인이 되어 정신활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식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었다. 신경의 과민 내지는 과도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신경쇠약을 열병의 요소와 결합시켜 기억상실과 같은 증상을 이끌어내는 상상력은 당시 독자들로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다.

이런 흔적은 저본인 『妾の罪』에서도 엿볼 수 있다. 「비봉담」에서는 ‘신경열병’ 또는 ‘신경렬병’이라는 표현만 등장하지만, 『妾の罪』에서는

15) 「自宅治療電氣帶廣告」, 『대한매일신보』, 1909.5.5.

16) 「夏節과 婦人, 여름철에 만히 싱기는 『회스테리』의 예방법」, 『매일신보』, 1923.6.1.; 「神經質인 男女는 春野散策도 危險」, 『매일신보』, 1927.3.19.; 「차차로 발생하게 될 신경쇠약 위장병」, 『중외일보』, 1930.3.10.

17) 「精神錯亂の入水 - 熱病の理髮職人」, 『부산일보』, 1915.8.13.

18) 실제로 장티푸스(Typhoid Fever)는 발병 과정에서 신경 계통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쳐서 섬망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1900년대의 서양의학에서도 장티푸스로 인해 우울증, 착란, 섬망 증상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910~1920년대 『매일신보』에서 열병 환자가 투신했다는 기사들 중 상당수는 장티푸스 환자다. C. C. Hersman, “Influence of Typhoid Fever on the Nervous System”,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31, October 1904, p.681.

19) 「熱病患者 溺死」, 『매일신보』, 1918.4.16.

20) 「咸興에 染病, 발만하는 열병」, 『매일신보』, 1917.6.27.; 「全州의 熱病」, 『매일신보』, 1918.2.27.; 「熱病이 大流行, 발진질부사도 많아」, 『매일신보』, 1919.5.6.

종종 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바로 “數多き讀者の中には必ず 神經の熱病の罹りたる人もあらんが²¹⁾”라 한 대목인데, ‘神經熱病’ 대신 ‘神經の熱病’이라 하여 ‘신경에 걸린 열병’이라는 함의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 부분은 독자를 호출하면서 신경열병이 이미 익숙한 병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설령 신경열병이라는 병명이 통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병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 즉 당대 독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상정된 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비봉담」 역시 위 대목은 그대로 번역해서 실어두고 있으며, 조중환은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첨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비봉담」에서 처음 신경열병이 거론되는 대목에서도 의사는 “열병 종류”²²⁾라는 진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부친을 통해서 언급된다. 『妾の罪』에서는 “(低い)燒病”²³⁾, 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수준의 ‘소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루비식 표기가 “ねつびょう[ねつびゃう]”인 것을 보건대 열병(熱病)의 오식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후로는 燒病이라는 명칭은 없고 전부 ‘(神經)熱病’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신경열병은 열병의 한 종류로 분류 가능한 정신질환의 하나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신경열병이란 신경쇠약으로부터 파생된, 혹은 신경쇠약의 맥락에 ‘열병’의 요소를 추가한 정신질환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실제 작품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 박화순의 유서를 두고 검사가 “이는 다만 신경과민한 일 녀즈의 감각을 잠시간에 써노은 것”²⁴⁾이라고 주장한 대목이 그것이다. 이 유서는 경성감옥에서 신경열병 증상을 앓던 박화순이 작성한 것으로 연재분 25회까지 그 전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소개되는데,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경

21) 『妾の罪』, 60面.

22) 「비봉담」 7, 1914.7.28.

23) 『妾の罪』, 40面.

24) 「비봉담」 61, 1914.10.23.

열병과 신경과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저본인 『妾の罪』에서는 “神經質な一女子の感覺”²⁵⁾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신경질(神經質)이란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에 걸리기 쉬운 체질 내지는 상태를 의미했다.²⁶⁾ “계집이라 하는 것은 일시 마음에 감동되는 일로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밋친 사름 곱흔 짓을 향용 하는 것”²⁷⁾이라는 검사의 발언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여성이 정신질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식은 당대에는 폭넓게 통용되던 것이기도 했다.²⁸⁾

이처럼 신경열병은 동시대에 『매일신보』에서 통용되던 신경쇠약과 비슷한 성격의, 혹은 그 파생형의 질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질병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신경열병을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로 대체하더라도 별반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봉담」에서 신경열병이 작동하는 방식은 「쌍옥루」나 「장한몽」에서의 신경쇠약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비록 질병의 성격 자체는 신경쇠약이나 신경열병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질병의 성격과 치유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에서는 양자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존재한다.

3. 신경쇠약에서 신경열병으로 - ‘병’과 ‘죄’의 분리

신경열병은 당대에는 통용되지 않던 병명이기는 하지만 「비봉담」에서술된 발병 양상은 신경쇠약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경쇠약,

25) 『妾の罪』, 342面.

26) 「神經質の子に就いて(上)」, 『조선시보』, 1923.1.31.

27) 「비봉담」 58, 1914.10.20.

28) 「夏節과 婦人, 여름철에 만히 칭기는 『히스테리』의 예방법」, 『매일신보』, 1923.6.1.; 鄭子英, 「朝鮮婦人의 疾病이 만흔 緣由」, 『시대일보』, 1924.4.2.; 「家政醫學」, 『시대일보』, 1930.4.14.; 「히스테리 - 부인에게 만든 것은 고통이 만든 관계로」, 『매일신보』, 1930.4.16.

신경과민, 히스테리, 우울증 등이 ‘신경의 과도한 소모에서 비롯되는 병’이라는 공통분모 하에 이해되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신경열병의 성격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은 비단 병 자체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겪는 발병 과정에서 드러난다.

「비봉담」의 서술자이자 중심인물인 박화순이 발병하는 과정은 「쌍옥루」나 「장한몽」에서의 이경자·심순애가 겪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쌍옥루」의 이경자는 사생아를 낳았다는 죄책감과 그 아버 서병삼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고서 정옥조와 결혼하여 정남을 낳았다는 죄책감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노출된다. 「장한몽」의 심순애는 원래 정혼자였던 이수일을 배신하고 자신의 욕망을 좇아 김중배와 결혼했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차갑게 변해버린 이수일에 대한 원망과 최만경에 대한 질투 등으로 인해 역시 신경쇠약을 앓는다. 이러한 질환의 중심에 놓인 것은 죄책감과 원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것, 혹은 자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을 정신질환에 도달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비봉담」은 연재 첫 회에서부터 이런 요소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 지 신경에 음습된다 허더니 첩은 실노 신경의 음습을 당”하였다는 박화순의 고백에서부터 이미 ‘죄’라는 요소가 명시되어 있다. 연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죄는 두 명에 대한 살인 혐의라는 점이 드러나는데, 그 이면에는 임달성과의 밀애를 밝힐 수 없는 사정과 더불어 임달성의 정혼자로 거론되던 류정숙에 대한 질투와 원한이 자리잡고 있다. 즉 임달성과 류정숙의 정혼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막고자 하여도 막을 수 없는 딜레마가 박화순으로 하여금 신경열병을 앓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전을 이전 번안작인 「쌍옥루」, 「장한몽」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은 더욱 명징하게 드러난다.

- (가) 독자시여, 첩의 가삼을 숨히혀주소서 첩은 다시 쥐리 우에 몸을 바리고 원통한 눈물을 흘니면서 정신업시 낮을 보니고 다시 밤을 지니엿도다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스스로 제 머리를 손으로 쥐여쓰들 듯 몸은 썰니고 리는 맛초여 한전 나는 사름 꺾치리가 공연히 갈니는도다 독주시여 첩은 그 모양으로 밤을 지니이고 시벽 네 시가 되엿도다 녀 덤 치는 종소리를 드른 후에는 그 후는 다시 싱각지 못헿엇스니 밤시도록 신경(神經)이 피로하여 울고 잇슬 힘도 업셔지고 숨 속 꺾치 길게 잠이 들엇던지²⁹⁾
- (나) 홀연 신문 보던 눈이, 캄々하여지며, 동시에 흥중에, 분기 일어나며, 피가 끌코 살점이 쥐여, 악문 니에서, 스스로 갈니는 소리 나며, 눈 속에는, 피스밋시 창일하여, 분흠과 원통흠을, 참고 잇는 모양은, 진실로 보기에, 쳐참하며 나중에는 참다 못하여, 들엇던 신문을, 두 조각에 찌져바리고, 그뒤로 그 자리에, 업드려진다³⁰⁾
- (다) 낮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을노 이것저것 싱각하다가, 췌々로 혼숨을 지으며, 연고 업는, 눈물 흔적이 보이미, 모로는 사름들은, 병으로 하여, 그러하다 할지라, 그러나 밤이 깊고, 인적이 고요할 때, 업던 정신이, 시로운 듯시 몸을 일어 칙상을 향하고, 무엇을 길고 길게, 쓰다가, 간々히 그 압해 누가 잇는 듯이, 리약이도 하여보며, 쏘는 눈물을 흘니여, 조희를 적실 때도 있다, 이렇듯 하다가, 밤이 시여갈 때에 일으면, 몸이 숨과 꺾치 피곤하여, 쥐리 우에 쓰러지면, 혼々침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³¹⁾

세 인용문 모두 각 소설의 중심인물이 본격적인 정신질환을 앓기 직

29) 「비봉담」 6, 1914.7.26.

30) 조중환, 「쌍옥루(상편)」 39, 『매일신보』, 1912.8.31.

31) 조중환, 「장한몽」 109, 『매일신보』, 1913.9.18.

전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세 인물 모두 자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비봉담」의 박화순은 명망가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연인인 임달성의 정혼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고, 「쌍옥루」의 이경자는 서병삼에게 버림받고서 사생아를 낳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장한몽」의 심순애는 김중배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에도 이수일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처지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세 인물로 하여금 ‘원(怨)’과 ‘한(恨)’의 감정을 갖게 함과 동시에, 이러한 감정을 풀 방법이 없는 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발병에 이르게 만든다.

해소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고난 또는 모순과 이에 직면한 여성인물이 딜레마가 정신질환을 낳는다는 서사는 신소설에서부터 자주 채택되던 방식이다.³²⁾ 다만 신소설에서는 대체로 심화병(心火病), 울화(鬱火) 등으로 표현되던 ‘화병(火病)’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다.³³⁾ 물론 병명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그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신소설에서의 화병과 변안소설에서의 신경쇠약³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변안소설에서는 ‘죄책감’이라는 요소가 개입된다는 점이 새롭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내면의 선성(善性)을 견지하는 신소설의 여성인물과 달리, 변안소설의 여성인물은 자신의 욕망을 좇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품게 되고 이를 속죄하는 과정에서 신경쇠약을 앓는 것으로

32) 박성호, 「신소설 속 여성인물의 정신질환 연구 - 화병(火病)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9,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20.5, 181-186쪽.

33) 신소설 내에서 ‘화병’이라는 병명이 일관되게 쓰이지 않는 데에는 당시 신소설에서의 의학용어가 전통 한의학 체계와 민간의 속칭, 개항 이후 유입된 서구의 것 등이 혼용되는 양상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장근호·최규진, 「신소설에 비친 개화기 의료의 모습」, 『역사연구』 35, 역사학연구소, 2018.12, 117-118쪽.

34) 「쌍옥루」와 「장한몽」에서 등장하는 병명은 각기 ‘히스테리’, ‘메랑고리아’로 동일하지 않지만, 그 실질을 차지하는 것은 신경쇠약이다. 19세기말 일본에서의 의학 관련 서적에서는 신경쇠약증을 ‘신경과민성 쇠약증’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는 신경쇠약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다. 상기의학 서적에서는 신경쇠약과 히스테리를 별도로 구분하지만, 대중매체에서 통용되던 관점은 그만큼 뚜렷한 변별성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려진다.

「비봉담」의 박화순에게서도 이러한 요소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고준식과 정혼을 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신분이 낮은 임달성과 연인 관계를 맺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임달성과 말다툼 끝에 그를 비봉담에 빠지게 만든 것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이 시초였다. “비밀갓치 무서운 것은 업는 것이라 첩의 죄는 모다가 이와 갓흔 가온디에서 일어났도다”³⁵⁾라는 박화순의 서술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부친을 속이고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연남을 자기 손으로 호수에 빠뜨려 죽였다는 ‘비밀’은 죄의식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박화순을 속박한다. 임달성에 대한 살인 혐의를 피해서 고준식과 도피하는 와중에 환각에 시달리다가 램프를 던져서 고준식을 죽게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박화순은 부친으로 인해 류정숙에 대한 질투와 원한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박화순의 부친은 임달성과 류정숙의 정혼을 주선하는 데 앞장서는데, 이를 위한 만찬 준비를 박화순에게 당부한다. 그 결과 박화순은 “남편을 남의게 빼앗기기 위하야 니가 손수 이를 쓰는 것은 사름의 오장을 가지고 흘 일은 안이로다”³⁶⁾라며 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류정숙의 얼굴 가죽을 벗겨서라도 임달성에게 소박을 맞게 하고 싶다는 억눌린 분노의 감정은 곧 인용문 (가)에 서술된 상태를 유발한다. 이처럼 박화순이 신경열병에 노출되는 원인과 과정은 번안소설의 신경쇠약이나 신소설의 화병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박화순이 처음 신경열병에 걸린 시점은 임달성을 호수에 빠뜨리기 이전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한몽」이나 「쌍옥루」에서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핵심이 ‘죄’에 있는 데 반해, 박화순을 앓게

35) 「비봉담」 3, 1914.7.23.

36) 「비봉담」 5, 1914.7.25.

만든 것은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다. 이로 인해 며칠 동안 앓은 후 뒤늦게 임달성을 만났다가 말다툼 끝에 그를 호수에 빠뜨리게 된다. 연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다시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죄책감은 박화순의 신경열병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박화순의 죄책감은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지언정 치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지 않는다. 「쌍옥루」의 이경자는 사생아인 옥남에 대한 사실을 정옥조에게 고백함으로써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더불어서 신경쇠약으로부터도 해방된다. 「장한몽」의 심순애는 이수 일에게 용서와 간호를 받음으로써 죄책감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또한 완치된다. 이경자와 심순애 공히 자신의 정당한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냄으로써 치유를 획득하는 셈이다. 하지만 박화순은 죄책감의 해소와는 무관하게 먼저 신경열병을 치료한다. 그의 신경열병 치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임달성이라는 점은 「쌍옥루」나 「장한몽」의 경우와도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임달성은 신경열병에 대한 의료적 처방에 주력했을 뿐 발병의 원인이 된 박화순의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임달성은 편지를 통해 박화순을 질타하기조차 한다.

그대는 나를 못 가온디까지 집어너허 죽이고즈 허던 사름인고로
그대의 몸이 병이 잇서 싱스를 니가 알 바 안이로디 니 몸이 임의
의원의 직착을 가졌슴으로 치료허지 안이힐 슈도 업스며 그디를 살
너 정신을 회복헌 후에 니 속에 잇는 원통헌 스경도 그디에게 말허
고 아조 작별을 허려는 싱각으로 그디의 병을 구허엿슴이요 조곰이
라도 그디를 사랑허여 구허여준 것은 안이라³⁷⁾

37) 「비봉담」 29, 1914.8.27.

“그대를 사랑하여 구하여준 것은 안이”라는 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거니와, 임달성이 박화순을 치료한 것은 의사로서의 행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과는 관계가 없었다. 심순애를 용서함으로써 치유를 가능케 한 이수일이나, 이정자와의 부부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히스테리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왔던 정옥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

「쌍옥루」, 「장한몽」에서 신경쇠약은 중심인물의 서사와 조용하여 발병과 치유의 과정을 겪는다. 이정자나 심순애가 겪는 죄책감과 원한은 발병의 원인이 되고, 이에 대한 정옥조나 이수일의 용서는 치유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발병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여성인물의 과오에 대한 징벌과 더불어 속죄의 양상을 보인다. 말하자면 이들 소설에서의 신경쇠약은 일종의 ‘죄’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비봉담」의 신경열병은 중심인물의 서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신경열병은 소설의 중반에 해당하는 경성감옥 부속병원에서 완치되지만, 이후로도 박화순은 이감과 공판을 거쳐 자신의 무죄를 사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게다가 이 시점까지도 박화순은 자신의 무죄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며, 김 변호사의 계책에 의해 류정숙의 살해와 관련된 거짓 진술을 하는 처지에까지 이른다. 신경열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다만 소설의 무대가 경성감옥 부속병원에서 진주재판소로 옮겨진다는 것, 즉 ‘병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 박화순의 속죄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신경열병은 박화순의 혐의와 증언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기조차 한다. 박화순과 검사 양쪽 모두 신경열병의 기전을 도구로 삼아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박화순은 신경열병으로 인해 잃어버린 기억을 치료의 결과로 되찾게 되었노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신경열병으로 인해 잃었던 기억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통해 박화순의 위증을 밝혀내려고 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신경열

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각자의 주장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의 문제일 뿐, 중심인물이자 서술자인 박화순이 자신의 죄의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여타의 조중환 변안소설 속 여성인물이 정신질환을 앓음으로써 ‘속죄’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비봉담」의 신경열병은 박화순의 서사에 묶이지 않은 독자적인 병리적 현상으로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박화순의 위증 여부를 가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의사’라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검사는 박화순을 처음 진찰했던 의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이 의사는 의학박사의 견해를 토대로 “그 병은 다른 병과 갖지 안이흔 병이라 한번 이져바린 일을 다시 생각해기는 대단이 어려운 일”³⁸⁾임을 주장한다. 즉 박화순이 신경열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발병 당시의 일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따라서 류정숙의 사고사(事故死)를 주장한 박화순의 진술은 의학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사는 감정인일 뿐 증인이 아니므로 그의 발언에는 효과가 없다고 반론하지만, “지금껏 지경험한 일과 쏘는 학리상으로 결정된 일인디 학자와 경험을 니여놔코 그 외에 어디 쏘 증거가 잇겟소”라는 검사의 반박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신경쇠약을 둘러싼 의학적 지식은 이미 속죄나 용서와 같은 차원을 압도하고 있었다.

신소설에서 등장했던 화병은 물론이려니와, 「장한몽」이나 「쌍옥루」에서 나타났던 신경쇠약에서도 병리학적 관점은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히스테리’나 ‘급성 메랑고리아’와 같은 구체적인 병명이 제시되거나, 요양이나 입원을 요하는 등의 간단한 의학적 처방이 등장하기는 했어도 질병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등장인물이 겪는 회개와 속죄의 서사였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서사는 비단 조중환의 변안소설뿐만이 아니라 「몽조」나 「인

38) 「비봉담」 54, 1914.10.14.

생의 한'과 같은 기독교 계열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것이었지만,³⁹⁾ 「비봉담」에 이르러 질병과 죄의 연결 고리는 미약해지고 대신 의학적 지식과의 연계 하에 질병이 중심인물의 서사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소설의 서술자가 더 이상 핵심적인 가치관을 주재하는 존재로 군림하지 않게 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비봉담」에 주목했던 요인 중 하나는 종래의 전지적 서술자와는 달리 작중 인물인 박화순이 직접 서술자를 담당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서술자의 시점 변화에만 그치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전 소설의 서술자가 담당하고 있던 가치 판단의 문제를 서술자 외부, 즉 의료 및 사법기관으로 대변되는 공권력으로 이양하면서 서술자의 위치 역시 작중 인물로 시점으로 내려앉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경열병의 치료를 둘러싼 양상이다. 신경열병이라는 ‘병’과 박화순의 ‘죄’가 분리되면서 양자를 진단하고 심판하는 주체가 서술자로부터 공권력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까닭이다.

4. 신경열병의 치료에 나타나는 의료와 사법의 결합과 권위

신소설은 물론이려니와 조증환의 다른 번안작인 「쌍옥루」나 「장한몽」에서조차도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적 처방은 별다른 치료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쌍옥루」의 이경자는 왕진한 의사에게 히스테리 진단을 받지만 이에 대한 의료적 처방은 한적한 곳에서의 요양 정도이며 그나마도 실현되지 못한다. 「장한몽」의 심순애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총독부

39) 박성호, 「근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와 치유의 문제 - 「몽조」와 「인생의 한」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6, 우리어문학회, 2020.1, 58-59쪽.

병원 제8호실에 입원하게 되지만 이러한 처치가 그의 병증을 완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두 작품에서 모두 발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 즉 죄책감과 억울함이 해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들은 모두 정신질환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비봉담」의 박화순은 경성감옥 부속병원에서 입달성에게 치료를 받은 결과 신경열병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본래 신분을 숨긴 채 경성감옥 부속병원에서 의사로 머물고 있던 입달성은 우연히 감옥에 갇힌 박화순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신경열병에 걸렸음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게 된다. “만일 병이나 증후였다면 이와 곱흔 설음을 이것을 것을 불행히 원슈의 병이 나아져 슬어허나 정신을 일치 안이하고 력々히 슬음을 알고 있는 슬음”⁴⁰⁾이라는 박화순 자신의 서술에서도 드러나거니와, 이후 병원장과 판사의 대화에서도 그의 신경열병은 치료된 것으로 확인된다.⁴¹⁾

이러한 박화순의 회복은 「쌍옥루」나 「장한몽」에서 나타나는 치료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 이경자나 심순애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됨과 동시에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상대방(정옥조, 이수일)과의 관계도 복구하게 된다. 물론 이는 발병 이전의 질서로 회귀하는 신소설에서의 화병과는 달리 새로운 관계의 수립을 통한 갱생⁴²⁾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해당 인물이 처한 고난으로부터의 해방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박화순의 경우에는 병으로부터 치유되었다는 것이 곧 그가 처한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입달성은 박화순을 치료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했고, 이는 뒤이은 박화순의 재판에

40) 「비봉담」 29, 1914.8.27.

41) “병원장은 첩의 업력으로 오며 (...) 여러 가지 기계로 조서히 진찰허더니 판스를 향하여 「병은 거의 다 나은 모양이나 아직도 원기가 회복되지 못하여서 그러하니 칠팔일만 지니엿스면 아쥬 완인이 되겟소」 「비봉담」 32, 1914.8.30.

42) 박진영, 앞의 글, 280-281쪽.

서 그를 곤경에 몰아넣는 원인으로 작용하기조차 한다. 병을 낮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의료 행위에 기인한 결과였을 뿐, 박화순이 겪게 될 고난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박화순의 고난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속죄나 상대방(임달성)의 용서가 아니다. 이 역할은 각 분야의 전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화된 기관, 즉 사법기관과 의료기관에게 부여된다. 경성감옥 부속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박화순의 ‘병’을 치료하고, 진주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박화순의 ‘죄’를 해소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달성은 각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경성감옥 부속병원에서는 의사로서 박화순을 치료하고, 진주재판소에서는 증인으로 나서서 박화순의 무죄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달성의 활약은 병원과 재판소라는 기관, 혹은 이러한 기관을 존재하게끔 하는 제도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비단 임달성과 같은 남성인물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비봉담」은 중심이 되는 여성인물인 박화순이 서술자 역할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는 1인칭 서술자가 등장했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서술자의 성격과 더불어 그 위상 자체가 변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신소설에서도 그러하려니와 「쌍옥루」나 「장한몽」에서도 서술자는 소설이 대변하는 가치관의 주재자이기도 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일종의 경쟁력이라고 여겼던 심순애의 태도를 ‘허영심’이라 규정한 「장한몽」의 서술자⁴³⁾부터 그러하거니와, 남성인물의 입을 빌려서 여성인물의 치유와 회개를 진단하는 방식 역시 이를 대변한다. 심순애의 치유를 두고 “부활”을 언급하는 이수일과 백락관,⁴⁴⁾ 이경자의 고백과 투병 속에서

43) 송명진, 「이식된 광기의 소설적 형상화 - 19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4, 대중서사학회, 2016.11, 102쪽.

44) 권정희, 「번역/번안의 분기 - 『장한몽』과 ‘번안의 독창성(originality)’」, 『상허학보』 39, 2013.8, 106쪽.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신혼’을 시작하는 정옥조⁴⁵⁾ 등이 그러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의료를 동원하더라도 고칠 수 없었던 여성인물의 정신질환에 대해 완치 판정을 내리고 갱생을 언급할 수 있을 만큼 서술자의 권위는 뚜렷한 것이었다. 이는 ‘도덕적 자연’에 대한 믿음과 회복을 전제로 하는 낙천적 세계관⁴⁶⁾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서사를 주재하는 도덕적 가치는 종종 사법이나 의료와 같은 사회 제도를 압도했다. 전자의 전능함에 대비하여 후자의 무력함이나 반동성이 강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신소설에서의 사법 체계는 당대의 혼란스러운 사회상, 즉 온갖 이진투구의 복마전이 만연하여 윤리와 도덕과 질서가 공백 상태에 놓인 현실⁴⁷⁾에 대한 전제로부터 제시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소설의 서술자들은 문명개화나 충군애국과 같은 당위적 명분에 근거하여 사법 체계를 활용하고는 했다.⁴⁸⁾ 「구마검」의 함종표가 법률전문학교를 졸업하여 평리원 판사로 임용되지만, 정작 금방울을 재판하는 대목에서는 “우리집 결판내던 년”임을 상기하고 자백을 받아낼 계교를 세우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소설에서 사건을 해결하던 방식은 사법 제도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특정 인물의 활약이나 우연의 작동 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게다가 「비봉담」이 연재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인 1910년대 『매일신보』의 신소설에서는 전대(前代)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화의혈」에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시찰은 공전(公錢)을 횡령한

45) 박진영, 앞의 글, 280-281쪽.

46) 정종현, 「사랑의 삼각형과 계몽 서사의 결합 - 『金色夜叉』와 식민지 조선의 근대 소설의 관련 양상연구」, 『한국문화연구』 26,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3.12, 284쪽.

47) 조형래, 「『소설(小說)』의 사실, 법률과 재판 - 『와사옥안』과 이해조의 『구마검』, 『구의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학회, 2018, 57쪽.

48) 위의 글, 58쪽.

죄로 재판을 받지만, 그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사법 당국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선초와 임씨 모자의 원혼이다.⁴⁹⁾ 「화세계」에서는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라서 구 참령이 거짓 계교에 속아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부연하는가 하면⁵⁰⁾ 「구의산」에서는 서 판서의 아들 오복이가 살해당한 후에도 경찰 제도의 부재로 인해 자의로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었노라고 논평하기도 한다.⁵¹⁾

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구의산」에서는 작중 시대의 병원이 “싱사름을 잡아서 피로논 옷에 물을 드리고 살은 물을 먹인다는 야미흔 말이 성형”⁵²⁾해서 사람들의 불신이 심했다고 서술한다. 이와 대비하여 ‘지금’은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며 식민통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춘의춘」의 계모 성씨 부인은 한성병원을 찾아가보라는 하나다의 권고를 무시한 채 “창의문 밧 히수함은 근처에 신기흔 의원”⁵³⁾에게 수양딸 영진의 병을 보이려고 한다. 게다가 이는 영진을 살해하려는 계교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원’을 통해 제시되는 처방 또한 의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묘사된다.

이해조의 『매일신보』 연재소설에서는 신정(新政), 즉 총독부 체제의 우수함을 역설하기는 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보다는 신정 이전의 시대, 즉 대한제국기의 사법·의료 체계가 지

49) “지판할 때마다 데출할 증거와 변문을 미리 준비헸었다가 급기 지판명예를 나가면 선초와 임씨 모즈가 눈압해 와서 울며 푹씩헸는 소리에 정신이 슈란헸야 지며 한 가지 기억을 못헸고 횡설수설 주착업시 말이 나오는 탓으로” 이해조, 「화의월」 56, 『매일신보』, 1911.6.9.

50) “인제는 세상이 점점 밝아 어슈룩흔 놈이 별로 업고 잡기나 인위조를 헸자니 경찰이 지독헸게 엄히서 두수업시 꼭 죽을 판인디” 이해조, 「화세계」 64, 『매일신보』, 1911.1.7.

51) “지금 모양으로 경찰이 밝을 것 고헸면 일변 시례를 검사헸다 혐의자를 도사헸다 고헸히 원범을 발각헸앗스런마는 그재만히도 암미헸던 시디라 지상가의 일 이라면 당자가 거조를 하기 전에는 감히 간섭을 못헸는 중” 이해조, 「구의산」 24, 『매일신보』, 1911.7.21.

52) 이해조, 「구의산」 4, 『매일신보』, 1911.6.25.

53) 이해조, 「춘의춘」 13, 『매일신보』, 1912.1.19.

닌 불완전성과 난맥상을 통해 등장인물이 고난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치세와 난세의 대비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라는 부연은 그의 『매일신보』 연재소설이라면 어느 작품이든 한 번씩은 등장하고는 했는데, 이는 대한제국기나 그 이전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해조의 한계이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시대의 연해주를 배경으로 등장시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총독부 체제 하의 조선을 직접 다루는 지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조중환의 연재소설이었던 「쌍옥루」, 「장한몽」은 아예 이러한 요소 자체를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무리 없이 동시대를 배경으로 삼을 수 있었다. 조중환은 기관이나 제도와 같은 외부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대신 등장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속죄와 용서의 서사를 구성했다. 여성인물의 정신질환 역시 이러한 자장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발병과 치유를 주재하는 것은 오로지 등장인물, 나아가서는 전지적 서술자의 몫이었다. 「장한몽」의 이수일이 총독부 병원보다도 더 뚜렷한 권위를 지닌 채 심순애의 완치를 선언하는 장면은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했다.

하지만 「비봉담」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동시대의 제도와 기관이 서사 내부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박화순의 재판을 둘러싸고서 사법과 의료가 긴밀한 연계 하에 막강한 권위를 발하는 장면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연재 후반부에 해당하는 33회부터 박화순은 경성에서부터 검사의 인도로 진주재판소로 이감되어 임달성과 류정숙에 대한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비봉담」은 이 재판 과정과 심리(審理)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박화순을 호송한 검사이자 예심판사를 겸하는 ‘신 판사’라는 인물이 주재하는 예심 장면에서부터 이러한 면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너는 아모리 그런 죄가 없다 허나 이와 곱흔 확실흔 증거가 있는
 이상에는 네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업느니라 그리하고 그제에 너는
 즉시 신경열병이 드러서 멧칠 동안은 정신을 일흔 사람이 되얏섯는
 고로 제가 허 일을 모도 이져바리고 저는 한 일이 업다고 싱각하논
 지 알 수 업다만은 처음에는 네가 분명히 죽일 마음이 잇서서 죽이
 엿스나 그 후에는 병으로 하여 이져바리고 싱각 못하논 일이 너 한
 사람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러한 전례가 만이 잇는 일이닛사⁵⁴⁾

예심판사는 살인혐의를 부인하는 박화순에 대해 위와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그의 반론은 신경열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술자인 박화순이 신경열병으로 인해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박화순은 이러한 예심판사의 반론에 대해 겉으로는 강하게 부인하지만, 독자에게는 “스스로 첩의 몸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자신의 기억 속에는 류정숙을 살해한 사실이 없으나, 이것이 신경열병으로 인한 후유증임을 지적하는 예심판사에 의해 자신의 기억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신경열병에 대해서든, 살인혐의에 대해서든 박화순이 처한 고난을 진단하고 해소하는 몫은 의사와 판사에게 돌려진다. 신경열병을 치료한 것은 임달성이지만 그 완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병원장의 몫이고,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를 증언한 것은 임달성이지만 그 증언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재판장의 몫이다. 물론 임달성은 의료와 사법 양쪽에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완치 또는 무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권력의 몫으로 돌려진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

이러한 권위의 변동은 서술자의 태도 변화로도 이어진다. 「비봉담」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비단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시점을 택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서술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뢰성을 의심한다. “독자시여

54) 「비봉담」 39, 1914.9.26.

첩은 스스로 첩의 몸을 의심하는도다”⁵⁵⁾와 같이 서술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을 품는 장면은 「비봉담」 곳곳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의구심의 원인은 서술자가 신경열병으로 인해 기억의 혼란을 겪는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서 서술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하는 공권력의 권위 때문이기도 하다. 신경열병에 대한 지식만큼은 의사가 서술자보다 확고한 우위에 있으며, 이러한 우위를 긍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재판정, 즉 사법기관이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의사를 호출하여 신경열병의 기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술자의 거짓증언을 폭로해내는 장면은 이러한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신경열병을 중심으로 한 「비봉담」의 서사는 신경열병을 둘러싼 박화순의 서사를 골자로 하면서도, 그 속죄와 갱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방인 입달성보다 외부적 존재인 공권력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질병에 대한 치료와 범죄에 대한 심판의 역할을 각기 병원과 재판소에 맡김으로써 등장인물의 역할은 그 자신의 도덕적 증거에 부응하기 위한 속죄와 판결 대신, 제도가 부과하는 증거에 따라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5. 정리하며

신소설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조중환의 대표적인 변안소설인 「쌍옥루」나 「장한몽」에서도 여성인물의 정신질환은 서사의 핵심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인물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하여 내몰린 결과 정신질환에 걸리고, 이러한 고난이 해소됨과 더불어 정신질환으로부터도 치유됨으로써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는 방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55) 「비봉담」 39, 1914.9.26.

이러한 경향은 「비봉담」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소설에 이르러서는 정신질환이 ‘죄’와 연동하여 서사와 조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병’으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이전의 소설에서는 발병과 적원(積怨), 투병과 속죄, 그리고 치유와 용서가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과 해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데 반해, 「비봉담」에서는 질병 치료를 의료가 전담하게 되었고, ‘용서’는 무죄판결이라는 형태로 사법기관의 몫으로 바뀌었다.

등장인물을 통해 강조되어왔던 도덕적 가치는 이제 사법이나 의료와 같은 각 전문 영역에서의 진단과 판결이라는 형태로 분화된다. 개인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제도의 영역 내에 포섭당하기조차 한다. 신소설에서는 전대에 대한 불신 내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동시대에 대한 신뢰의 형태로만 막연하게 드러나던 사회 제도의 존재가 「비봉담」을 통해서도 뚜렷한 실체를 확보하고서 개인을 장악해나가기 시작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는 신경열병이라는 새로운 병명의, 그러나 익숙한 기전을 바탕으로 둔 정신질환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신경열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박화순의 무죄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거나, 신경열병을 치료하고 그 완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경성감옥 부속병원이라는 전문 의료 기관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가 소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가늠하게끔 한다. 무죄를 입증하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연인인 임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전의 소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서술자를 대변하여 용서와 치유를 판정하는 가치 준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이 핵심을 외부의 제도와 기관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점은 뚜렷한 차이이자 변화였다.

「비봉담」이 등장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우게 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조용하는 바였다. 사법과 의료의 제도적 권위가 확고한 위치를 점한 이상, 등장인물의 역할은 그 질서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요, 그 과정이란 전지(全知)할 수 없는 등장인물이 서술자의 역할을

말아서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는 것이었다. 박화순은 서술자로서의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경열병으로 인한 착란과 망각을 내세웠다. 그리고 임달성은 신경열병을 치료하고 박화순의 무죄를 증언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박화순의 완치와 무죄를 판정한 것은 의료와 사법의 몫이었다. 신경열병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놓인 질병으로서 화병으로부터 시작된 소설 속 정신질환의 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셈이었다.

■ 참고문헌

1. 기초자료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중외일보』

『공수학보』, 『청춘』

黑岩淚香, 『妾の罪』, 三友舎, 1890.

2. 논저

권보드래. 「죄, 눈물, 회개 - 1910년대 변안소설의 감성구조와 서사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권정희. 「번역/번안의 분기 - 『장한몽』과 ‘번안의 독창성(originality)’」.

『상허학보』 39. 상허학회. 2013.

박성호. 「근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와 치유의 문제 - 「몽조」와 「인생의 한」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6. 우리어문학회. 2020.

박성호. 「신소설 속 여성인물의 정신질환 연구 - 화병(火病)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

박진영. 「1910년대 변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 - 일재 조중환의

『쌍옥루』와 『장한몽』」.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송명진. 「이식된 ‘광기’의 소설적 형상화 - 19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4. 대중서사학회. 2016.

이지훈. 「조중환의 『비봉담』 변안과 여행의 서사 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한국근대문학회. 2017.

장근호·최규진. 「신소설에 비친 개화기 의료의 모습」. 『역사연구』 35.

역사학연구소. 2018.

정중현. 「사랑의 삼각형과 계몽 서사의 결합 - 『金色夜叉』와 식민지 조선의 근대 소설의 관련 양상연구」. 『한국문학연구』 2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조형래. 「‘소설(小說)’의 사실, 법률과 재판 - 『와사옥안』과 이해조의 『구

- 마검』, 『구의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학회. 2018.
- 최태원. 「일재 조중환의 번안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최태원. 「번안이라는 난제 - 조중환의 번안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 飯高芳康 · 青木純造 編訳. 『医家綱鑑』. 朝香屋書店. 1898.
- Hersman, C.C. Influence of Typhoid Fever on the Nervous System.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31. 1904.
- Bauer, Dale M. Nineteenth-Century American Women's Serial Nov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Parry, Sara. A Strange Fever of the Nerves and Blood. M.A. English Literature,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4.

❖ ABSTRACT

Changes in Mental Illness Patterns and Their
Meaning in Adapted Novels
– Focusing on Jo Joong-hwan’s “Bibongdam” and
Neural Fever^{*}

Park, Sungho
Kyung Hee University

Jo Joong-hwan’s “Bibongdam” is an adapted novel serialized in *Maeilshinbo*, followed by “Ssang-ok-ru” and “Janghanmong”. This novel, based on Ruiko Kuroiwa’s *Warawatsunomi*, like the two previous novels, focuses on the story of a mentally ill female. It is neural fever, or ‘*Shingyungrylbyung*’ that appears in “Bibongdam” like the hysteria of “Ssang-ok-ru” and the melancholia of “Janghanmong”. The main character, Park Hwa-soon, suffers from neural fever and as a result is faced with murder charges. The main thrust of this novel is that she avoids the charges through trials and heals from neural fever and restores her relationship with her lover, Im Dal-sung.

However, the neural fever in “Bibongdam” is different from other mental illnesses in previous novels. While other novels’ mental illnesses were linked to the guilt of the female character, neural fever has its own identity as a disease separate from the guilt of Park Hwa-soon. So, unlike other mental illnesses that are healed through atonement or forgivenes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6A3A04058286)

neural fever is healed by a doctor and is not associated with the atonement of the main character. Im Dal-sung, who treats the Park Hwa-soon's neural fever, is also a doctor, focusing only on medical practice, and does not forgive her.

Also, the subjects that enable the atonement and forgiveness of the characters are transferred from the characters to external institutions. The medical institution treats her neural fever, and the judicial institution finds her innocent. In the previous novels,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s made by male characters representing moral values, but in “Bibongdam”, it is realized by institutionalized power. In this process, the character, or ‘individual’, is reduced and is revealed as being embraced by the system. The appearance of the first person narrator, regarded as a characteristic of “Bibongdam”, is also related to this reduction of these individuals.

Key Words : adapted novels, neural fever, nervous breakdown, mental illness, medical treatment, *Maeilshinbo*

■ 논문접수일 : 2020. 08. 10

■ 심사완료일 : 2020. 09. 13

■ 게재확정일 : 2020. 09. 14